

박삼구회장 금호산업 인수 자금조달 관건

채권단 매각절차 본격화 ... 매각가 1조원대 부담

타 기업서 눈독 ... 금호고속 매각도 급물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그룹 경영 주도권을 쥐기 위해 최대의 고비가 될 금호산업 인수에 성공할 지 재계와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등 그룹의 계열사를 거느린 금호산업의 운명은 다음달 초 윤곽이 드러난다. 박 회장으로선 사활을 걸어야 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자금력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금호산업의 채권단은 이달 25일까지 금호산업 인수의향서(LOI)를 받아 본격적으로 매각을 추진한다. 일단 금호아시아나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해 인수전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다. 하지만 박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가 금호산업을 인수하려

면 최대 1조원대의 자금이 필요하다. 박 회장은 지난 2011년 보유 중이던 금호석유화학 주식 전량을 490억원에 매각했는데, 이 금액은 거의 모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유상증자 자금으로 들어갔다. 금호타이어 지분 7.99%도 채권단 담보로 잡혀 있다. 자금 동원이 힘들다는 얘기가. 금호산업이 시장에 나오면서 가치가 1조원대까지 오른 것도 박 회장이 부담이 되고 있다.

금호산업은 매각이 거론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채권단이 주식 매각 공고를 낸 지난달 30일 3만1150원으로 최고가를 찍었고, 9일 종가도 2만6100원으로 마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단은 금호산업 지분을 최대한 비싸게 매각하려고 할 것”이라며 “금호산업의 매각이 재계의 높은 관심 속에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산업의 주력 업종은 건설업이지만, 국적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08%를 가지고 있다. 단독 최대 주주다. 금호산업 인수만으로 아시아나항공을 거머쥘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경영권 확보 시 항공업은 물론이고 목포·순천·여수·공주 등 20여 곳의 버스터미널이 손에 들어온다. 터미널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이 때문에 금호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인수업 진출을 원하는 여러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태기업인 금호고속 인수도 관건이다. 금호아시아나로선 금호산업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금호고속 인수라는 또 다른 산이 남아있다. 금호고속 최대 주주인 IBK-케이이스트파트너스는 오는 14일께 금호아시아나측에 금호고속 매각제안에 나서 최종 통첩을 하기로 했다. 현재 시장에선 금호고속의 가치를 5000억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금호 측이 금호고속에 대한 매각 가격 등의 제안을 다음달 2일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잃게 된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금호고속과 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기업과 지주회사로서 우리가 인수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이 재무투 투자자를 동반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동생인 박현주 대우건설 부회장 등이 거론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47.00 (-8.52) ▲ 금리 (국고채 3년) 1.98% (+0.02)
- ▼ 코스닥 593.75 (-10.38) ▲ 환율 (USD) 1094.90원 (+5.20)

가계 부담 세금, 소득보다 2배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소득 3.6% 늘어

조세 지출액 5.9% 증가

가계의 세금부담 증가속도가 소득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중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1만4334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다. 같은 기간에 가계의 월평균 조세 지출액은 15만4276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9%인 8606원 증가했다. 조세 지출은 근로소득세·재산세·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인 ‘경상조세’와 부동산세·자동차 취득세 등을 아우르는 ‘비경상조세’를 합친 것이다. 가계가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 먹을 때 내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가구가 부담하는 세금은 가계지출 통계에 잡히는 액수보다 많다.

가계의 세금 부담은 2010년부터 5년 연속 소득보다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2010년 가계 소득(전년비)이 5.8% 늘어날 때 조세 지출액은 11.5% 증가했다. 이후 조세 지출액 증가율은 가계소득보다 2011년 3.1%포인트, 2012년 2.4%포인트, 2013년 0.7%포인트 높았다. 좁혀지는 듯했던 격차는 지난해 1~3분기에 다시 2.3%포인트로 벌어졌다. 2003년만 해도 월평균 7만1129원이었던 가계의 세금 부담은 10년 만에 2.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 소득은 1.6배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금뿐 아니라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도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신청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원장 이환우)이 국내 대표 창업지원사업인 ‘호남청년창업사관학교’ 5기 입교자의 신청·접수를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창업 준비 중인 청년창업자(만 39세 이하)를 선발,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단계 전 분야를 일괄 지원해 젊고 혁신적인 청년 창업CEO를 양성하게 된다. 최종 합격자에게는 1년간 최대 1억원까지 시제품 개발 및 제작비, 창업 활동비 등 사업화 단계별 사업비(보조금)가 지원되며 창업 준비기간 및 창업 실무교육, 기술 및 마케팅 단계별 전문가 및 멘토링과 사업화를 위한 정책 자금 등이 연계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의 창업 초기 기업은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새얼굴

“지역 우수 중기 발굴·육성 최선”

윤 헌 기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장



“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신용보증기금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9일 부임한 윤헌기(53)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선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헌기 본부장은 또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신보가 존재하

는 이유”라며 “올해 상반기에 연간 보증공급액의 60%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성 출신인 윤 본부장은 1987년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해 수원지점장, 본사 인사부장, 마포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간호사·물리치료사 등 대상

광운 의료인플러스대출 출시

광운은행은 간호사·임상병리사 등 의료직 국가전문자격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상품인 ‘의료인플러스대출’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9개 직군이며 전국 50여 만명의 의료인(3개월 이상 재직)을 대상으로 한다.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중·소형 병·의원에도 재직 중인 의료인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주)과의 연계로 기존 금융기관 신용대출에 추가로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4.73%(9일 현재 기준)이며, 신용카드 이용, 자동차제 거레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점검

설을 일주일여 앞둔 9일 농협 관계자들이 무안 하나마트 남양점에서 명절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유통기한 경과, 식품보존 및 보관방법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한전, 나주 금성관~중앙로 배전선로 3.9km 지중화

빛가람에너지밸리 첫 사업 ... 나주시와 양해각서 체결

한국전력과 나주시가 9일 배전설비 지중화를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전이 추진하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1번째 실행사업으로, 나주 도시의 배전선로 3.9km가 신공법으로 지중화에 들어간다.

이날 한전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이

낙원 전남도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이 참석했으며 한전은 이 사업에 총 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6년 10월까지 나주시 금성관, 중앙로 지역의 배전선로 3.9km를 지중화하기로 했다. 또 각 지역별로 도시경관 등을 고려해 다양한 첨단 공법을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한전은 현재 고품질의 전력공급과 도시경관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신기술·신공법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한전은 이를 나주시에서 추진중인 나주 읍성·나주목 관아 복원사업 지역에 시범적용해 나주 지역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나주시에 ‘지중배전 종합홍보관’을 구축, 국내 및 해외 전력사에 세계

최고수준의 배전기술과 국내 기자재업체의 기술역량을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나주시가 미래 배전사업의 표준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빛가람 혁신도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도시로서 세계 속의 에너지밸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전은 지역 상생을 통해 국내 최대 공기기업으로서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광주전남지역이 혁신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크리야, 미스전복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년째 B1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앙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신제품 **59만원** ~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